

# 나주시,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오는 21일 개막

전라남도 나주시가 깊어지는 가을밤, 시민과 관광객에게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나주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별이 내린 빛의 정원'을 주제로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하는 늦가을 야간축제의 낭만을 밝힌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축제가 빛과 자연, 예술이 어우러진 도심형 야간정원 축제로 환상적인 조명 연출과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람객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빛의 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막식은 11월 21일 저녁 6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7시 개막선언과 미디어퍼포먼스 크루의 개막 공연, 점등 퍼포먼스, 빛정원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빛과 음악,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지는 개막 무대를 통해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타의 하이라이트인 빛 조형물 전시 구간은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빛이 꽃피는 정원, 늦가을 밤의 마법이 펼쳐진다

별빛과 음악,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야간축제

뒤 여울다리 입구에서 배매산 산책길까지 이어진다.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장식이 조성돼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빛의 터널'과 '별빛 산책길'을 연출한다.

특히 축제 종료 후에도 조명 시설은 2026년 1월 4일까지 야간 상시 점등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연말연시 내내 아름다운 빛의 정원을 즐길 수 있다.

페스타 2일 차인 11월 22일 오후 4시에는 배매산 일원에서 '빛가람 건강돌레길 조성 기념 시민걷기대회'가 열린다.

걷기 코스는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여울다리, 황토길, 정상돌레길, 경관 폭포, 웨딩정원, 수국원을 거쳐 다시 야외무대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구성됐다.

시민들이 빛가람의 자연경관을 따라 걸으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

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후 야간에는 빛정원 속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장에는 40여 개의 플라마켓과 어묵, 분식 등 겨울 간식 푸드트럭 그리고 지역 대표 기업 팔도와 협력한 특별 판매부스 '팔도 라면 먹고, 빛길 갈래?'도 운영된다. 이 부스는 팔도 제품을 활용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제공하며 지역 상인회와 협력한 상생형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미니트리 만들기 등 체험형 시민 참여 부스도 마련한다.

행사 기간 중 드레스코드 '그린'을 착용



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는 '별이 내린 빛의 정원'이라는 주제처럼 시민들이 환상적인 빛의 세계 속에서 마법 같은 밤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깊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을 행복한 추억으로 채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완도군, '맨발로 걷고 나눔 실천'하는 켈린지 성로

건강 증진, 나눔 문화 확산, 사회적 상생 등 세 가지 가치 실현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진행한 '맨발 걷기 나눔 켈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맨발 걷기 나눔 켈린지'는 걷기 앱을 통해 한걸음당 1원이 적립되며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켈린지는 평일과 주말(오전 10시, 오후 2시) 해양기후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총 20회 진행했으며, 완도해양산업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장 운영, 안내, 안전 관리를 지원했다. 켈린지는 한 달간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30%가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기부금은 참가자 명의로 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전달되어 취약 계층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에 쓰일 예정이다.

10월 21일에는 '완도의 해양치유 여정에 발자국을 남긴다'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맨발 도장 찍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파도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모래 해변을 걸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완도에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완도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한 뜻깊은 켈린지였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유의 섬, 완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군은 맨발 걷기와 해양치유, 기부 문화를 연계한 완도만의 참여형 힐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벌교읍 채동선음악당에서 '제379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속노화' 돌풍을 일으킨 정희원 박사(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저속노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보성군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범람하는 건강 정보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전도사 정희원 박사, 보성군에서 건강의 해법 말한다

제379회 보성자치포럼, 25일 채동선음악당에서 개최

'저속노화 습관'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정희원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했으며, 서울대학교 의학석사과 KAIST 이학박사를 취득한 의과학 분야의 대표 전문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라디오스타>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서

울시 건강총괄관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운영 등을 통해 '과학 기반의 노화 관리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지역 현실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김문기 기자

**저속노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

2025. 11. 25. (화) 오후 2시  
채동선 음악당(벌교읍 채동선로 297)  
문의: 보성군민(선착순)  
061-7,061-850-6121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 장성군,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17일부터 접수

학기당 최대 200만원... 12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성군이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2 학점 이상 이수, 평균 씨(C) 학점 이상 취득 △한국장학재단에 올해 2학기분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보호자가 2022년 11월 11일 이전에 전입한 뒤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가·교내

장학금이 확정되는 2026년 1월 무렵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은 2023년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 원 한도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재)장성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밝히는 일"이라며 "군민의 호응이 높은 핵심 공약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혜연 기자

곡성군 관내 음식점, 취약계층 위한 짜장면 봉사활동 펼쳐

## 매년 이어온 나눔으로 지역 사회에 온정 전해

지난 11월 17일, 곡성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에서 짜장면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지역 음식점 '청학' 대표(권이흥)가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학 음식점 대표가 직접 조리한 짜장면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사로, 대표는 수년째 한결같이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온정은 곡성삼강원과 인정원 이용자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는 "지역 자영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 또한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민간 자영업체가 협력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는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며, "군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 062-525-9775

## 화순 청소년, 정례 조회에서 글로벌 문화체험 소감 전해

'만원으로 여는 미래,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싱가포르 연수 경험 공유

(재)화순장학회(이사장 구복규)는 11월 10일(월) 오전 9시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만원으로 여는 미래,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참가 학생들의 연수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화순장학회가 추진한 '만원으로 여는 미래,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 성과를 체험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군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례 조회에서는 화순고등학교 1학년 김승권·서수민 학생이 대표로 나와 싱가포르 연수 경험과 느낀 점을 발표했다. 두 학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자신

감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례 조회에는 구복규 화순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회 이사, 참가 학생, 군청 직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함께 듣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만원으로 여는 미래,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은 (재)화순장학회가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3박 5일간 진행됐다.

관내 중학교 2학년 15명과 고등학교 1학년 15명 등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문화·역사 체험과 첨단 과학기술 시설 견학, 명문대 탐방 등을 통해 글로벌 감각과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에 지나갈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살 같은 삶은 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볼 것.  
 나보다 일단 사람을 만드느라 고민할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작지만 의미 있는 문장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 속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색감처럼** **만드** **기** **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을** **리** **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공유** **의** **색** **을** **가** **능** **하**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 **진** **인** **사** **람,**  
 내가 정말 **관** **심** **하** **는** **사** **람** **이** **되** **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인** **간** **의** **정** **신**  
**엔** **다** **잘** **될** **테** **니** **까** **내** **가** **가** **진** **인** **사** **람**  
**그** **자** **체** **만** **으** **로** **도** **가** **진** **인** **사** **람**  
**좋은** **거** **라** **면** **가** **진** **인** **사** **람**  
**은** **언** **제** **나** **우** **연** **하** **는** **사** **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